

엄마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광주, 자녀와 사는 여성 고용률 56.2%...3년째 ↓
‘맞벌이’ 비율은 4년 연속 늘어 16만9000가구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자녀가 있는 여성이 일할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광주에서 맞벌이 가구 비율은 4년 연속 늘고 있지만,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의 고용률은 3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7일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의 고용률은 전국 평균 55.5%로, 전년보다 1.5% 포인트 하락했다. 광주는 56.2%로 전년보다 1.9%포인트 떨어졌고, 전남은 0.8%포인트 오른 60.8%를 나타냈다. 광주 자녀 동거 여성의 고용률은 지난 2017년 61.3%에서 2018년 58.2%, 2019년 58.1%, 지난해 56.2%로 3년 연속 떨어지고 있다. 농가인구가 전체 인구의 15.8%를 차지하는 전남의 경우 가족이 함께 농업에 종사하는 특성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64.8%)에 이어 두

번째로 고용률이 높았다.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은 15만3000명으로, 이 가운데 56.2%에 달하는 8만6000명이 취업을 했다. 자녀 동거 여성은 전년보다 6000명 줄었고, 자녀 동거 취업여성도 6000명 감소했다. 전남 자녀 동거 취업여성도 전년보다 6000명 줄었지만, 자녀 동거 여성도 1만1000명 급감하면서 고용률은 되레 올랐다. 광주지역에서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의 고용률은 3년째 떨어지고 있지만, 맞벌이 가구 비율은 4년 연속 증가 추세다. 지난해 지역 맞벌이 가구 수는 광주 16만9000가구·전남 26만3000가구 등 43만2000가구였다. 광주 맞벌이 가구 수는 전년과 동일했고, 전남에서 1000가구 줄어들었다. 지난해 기준 광주 유배우 가구 34만7000가구 가

운데 16만9000가구가 맞벌이로 집계되면서 맞벌이 비율은 48.7%로 나타났다. 전남은 45만7000가구의 57.7% 상당인 26만3000가구가 맞벌이를 했다. 광주 맞벌이 가구 비율은 43.7%(2016년)→45.5%(2017년)→47.7%(2018년)→48.6%(2019년)→48.7%(지자체) 등으로 4년 연속 늘고 있다. 지난해 광주 맞벌이 비율은 전국 평균(45.4%)을 웃돌았다. 광주 비율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전국 평균을 넘어왔다. 전남 맞벌이 비율도 지난 2016년 57.6%에서 이듬해 55.3%로 내려간 뒤, 57.5%(2018년)→57.5%(2019년)→57.7%(지자체) 등으로 오르는 중이다. 전남은 통계를 낸 지난 2011년부터 해마다 제수에 이어 맞벌이 가구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전남 농가의 유형의 절반 이상(54.5%·7만4000가구)은 ‘2인 가구’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농림어업, 도소매업이 많은 지역이 맞벌이 비중이 높다”며 “맞벌이 비중이 높은 제주, 전남, 전북은 농림어업 비중이 20%가 넘는 지역들”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하루 9만7221원 중기 생산직...전년비 1.4% 증가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상반기(3월 임금 기준) 중소기업 생산직 직종 129개의 평균 일급을 조사한 결과 9만7221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8월) 대비 0.6%,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 증가한 것이다. 일급은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을 합한 금액을 근로시간으로 나눈 뒤 하루 기준인 8시간으로 곱한 것으로 국가를 상대로 계약할 때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일급이 가장 높은 직종은 컴퓨터이용설계

(CAD)를 이용한 회로 설계사로 13만7273원이었다. 이어 화학공학 품질관리사(13만5678원), 전기기사(13만3795원) 순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임금의 직종은 7만167원을 받는 유리 절단 및 재단원으로, 재봉기능원(7만5363원)과 유리제품 생산기계 조작원(7만8011원)이 뒤를 이었다. 주요 직종별로 보면 단순 노무종사원은 8만1196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0.7% 상승했다. 작업반장은 11만9345원으로 0.2%, 부품조립원은 8만4628원으로 1.4% 일급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세일글

“국민 사랑 받는 ‘그린 에너지’ 기업 될 것”

김흥연 한전KPS 사장 취임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린 에너지’ 기업으로 지속 성장하겠습니다.” 지난 25일 한전KPS 제15대 사장으로 취임한 김흥연(사진) 신임 사장은 이날 나주 본사 빛가람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같이 포부를 밝혔다. 김 사장은 “탄소중립으로의 에너지 전환과 발전 정비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한전KPS가 그린에너지 지속성장 기업이 되도록 ‘업(業)의 확장’을 통해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직원들에게는 “한전KPS가 고객지향을 통해 고객의 폭 넓은 신뢰를 받고 ESG경영을 선



도하며,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글로벌 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성장의 발판이 되어온 주인의식, 도전정신, 혁신의지를 되새기자”며 “세계 넘버원 전력설비 정비산업 그랜드 플랫폼 기업”이라는 비전을 향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린 에너지’(Green Energy) 지속성장 기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지난 1978년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해 한전 해외사업운영처장, 그룹경영실장, 서울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백희준 기자 bhj@

광주은행 ‘송프로와 함께하는 공감 한마당’ 열려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

자행 출신 첫 광주은행장에 오른 송중욱 은행장이 후배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광주은행은 8차례에 걸쳐 마련한 ‘송프로와 함께하는 특색 공감 한마당’을 최근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일하기 좋은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송 행장이 직접 제안해 시행됐다. 송 행장은 지난 5월부터 직급별, 지역별로 회차를 나눠 총 131명의 직원을 만나왔다. 이 프로그램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송 행장을 ‘송프로’라 부르며 함께 음악을 듣고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영업 노하우, 제테크 방법, 건강관리, 취미생활 등 다양한 주제의 질문을 익명으로 받아 답하기도 했다. 이날 나눈 의견은 즉각 현장에 반영될 방침이다. 송 행장은 지난 4월, 2분기 경영전략회의부터 기존 진행방식을 피하고 각 영업점장들과 일대일 방식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 같은 소통방식은 ‘특독데이’, ‘다독다독 소통광장’, ‘CEO 영업보고’ 등에 반영됐다. 송 행장은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과의 상생·지역민과의 동행’에 충력을 다하기 위해서는 직원 여러분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광주은행만의 따뜻한 기업문화를 탄탄하게 확립해 지역 공동체의 본보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송중욱(오른쪽) 광주은행장이 광주시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송프로와 함께하는 특색 공감 한마당’을 열어 직원들과 소통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산업진흥회 기술개발 촉진 사업지원 ‘인기’

올해 44개 기업 모집에 132곳 지원

한국광산업진흥회는 광 관련 기업 44개사를 선정해 총 3억4000만원의 광융합 기술개발 촉진 및 사업화 지원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기술사업화 패키지지원, 시제품제작, 제품 고급화, 특허, 제품 디자인 등 사업화를 위해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광융합 기술은 빛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인식하고 빛의 성질을 이용해 타 분야 기술과 융합을 거쳐 신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을 고도화한 것으로, 대표적인 제품은 스마트조명, 자율주행차의 라이다(LIDAR), 고출력 레이저(Laser), 마이크로LED, 뷰티케어용 LED마스크, 스마트광용 LED 등이 있다. 앞서 진흥회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4개사에 해당 사업 지원을 했으며, 올해는 지난 5월 모집공고 이후 132개사가 11억3500만원을 신청하는 등 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조용진 진흥회 상근부회장은 “기업의 수요 맞춤형 지원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광융합산업 전담 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로또복권

(제969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3	9	10	29	40	45	7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149,427,894				20
2	5개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68,418,328				56
3	5개 숫자일치	1,455,157				2,633
4	4개 숫자일치	50,000				133,079
5	3개 숫자일치	5,000				2,211,803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의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텅텅 비어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원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